

외지 투기세력들, 봉선·수완 아파트값 폭등시켜 시세차익

광주시 단속 결과... 여러 채 매입 후 되팔아 가격 상승 부추켜

광주 일부 지역에 외지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적(광주일보 2020년 11월 5일자 1면)과 관련, 광주시 단속에서 외지인 매수로 인한 폭등 정황이 확인됐다.

광주시는 11월부터 남구 봉선동, 광산구 수완지구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지난 9월부터 17일 현재까지 봉선동 전체 매매 건수는 총 378건이었다. 이중 외지인 매수는 서울 14건, 대구 53건, 경기 12건, 경남 6건, 경북 20건, 대전 4건, 부산 16건, 인천 1건, 울산 6건, 충남 3건 등 총 135건이었다. 3채 중 1채를 외지인이 사들인 것이다. 외지인들이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을 피해 광주에서 수요가 많은 봉선동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이고 호가를 올린 뒤 다시 되팔아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선동과 수완동 등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일부 아파트 가격이 1~2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병래 남구청장은 "최근 봉선동 아파트값 폭등 실태를 알아본 결과, 대구 등 외지인이 3~4채씩을 쓸어 모으듯 사들이고 있다"며 "외지인들은 호가를 올리면서 서서히 아파트를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 광주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실

제 아파트 수요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며 강력한 단속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밝혔다. 광주시는 수완지구 등 다른 지역에서 외지인 매수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사항 9건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매매계약서 미보관 1건, 신고 내용과 계약서 불일치 1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7건 등이다. 시 민생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남구 토지정보과, 광산구 부동산 지적과로 합동단속반(2개 조 12명)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윤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신규 분양 아파트는 별도로 불법 전매 및 다른 거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진희 기자 lucky@kwangju.co.kr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행사에서 참가자들이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석가탑 주위를 돌며 탑돌이를 하는 모습. <광주불교연합회 제공>

“나주 SRF ‘난방공사 재량에 맡긴다’ 조항 삭제 가능성 논의하겠다”

전남도, 혁신도시 시민대표 거버넌스 복귀 호소

전남도가 나주 고흥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민관협력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해 거버넌스 탈퇴를 선언한 옛 범시민대책위(혁신도시 주민 대표) 측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범대위 대표 사퇴와 거버넌스 탈퇴를 부른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열공급(SRF발전소 가동)은 난방공사 재량에 맡긴다'는 지난 9월 합의안의 조정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고 강조하면서 거듭 거버넌스 복귀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SRF열병합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시민대표의 거버넌스 복귀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입장문에서 "거버넌스 위원회는 5차 전월합의체로 운영되는 구조"라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시민대표의 거버넌스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열공급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조항의 경우 '재량 삭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 "LNG 발전소만을 사용할 경우 열요금 인상 범위 등 주민 수용성 조사를 위한 마무리 협상을 위해서도 시민대표의 거버넌스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손실보전 방안 협상과 관련해 2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과 전남 3개 시 신규 소각시설 확대 등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거버넌스 기간 환경영향 조사와 다양하게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주민수용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발전소 운영사인 한남을) 촉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거버넌스 기본 합의서에서는 '환경영향조사→손실보전방안 마련→주민수용성조사(주민여론·공론조사)'를 거쳐 SRF발전소 운영 여부 결정하기로 했으나, 손실보전방안 마련 불발 시 곧장 주민수용성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전남도의 호소에도 혁신도시 주민 대표의 거버넌스 복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당장 지난 16일 SRF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혁신도시



전남도가 17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탈퇴를 선언한 범시민대책위 측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은 SRF발전소 전경.

주민들이 광주시청으로 원정 시위를 와 "광주 쓰레기 연료 반입 철폐"를 강하게 주장하는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SRF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혁신도시 주민 대표 단체였던 범대위 해체 이후 대표성을 띤 단체가 없다는 점도 장애 요소로 지목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연등회,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유력

유네스코, 12월 최종 결정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연등회'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향후 등재 판정이 되면 연등회는 우리나라 21번째 인류무형유산이 된다.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등재, 정보 보완, 등재 불가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등회 등재 여부는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15차 무형유

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평가기구는 연등회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신청서 중 모범사례로 제시하며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라고 평가했다.

연등회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음력 4월 8일에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행하는 불교 행사다.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 차별 없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등회는 지난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으며 연등회 보존위원회를 중심으로 전통등 제작, 전시, 강의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회포럼 개최

오늘 14개 지자체·국회의원·전문가 등 참여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힘을 모은다.

광주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번 포럼은 광주시, 대구시 등 14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광주와 대구, 경유지역 선거구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은 이번이 4번째다. 그동안 14개 경우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성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영호남 상생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국비 5억원을 확보해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는 등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내년 6월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달빛 내륙철도의 신규 사업

반영과 사업 조기 현실화를 목표로 추진방안 등이 논의된다.

광주시 등은 앞으로 1400만명에 달하는 사도민의 염원을 담아 6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공동건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203.7km 구간을 고속화철도를 통해 최고 시속 250km 달려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4조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원도경유 제 주변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가계획 반영 방안을 찾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4명이 주최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책임없는 난개발

▶1면에서 계속

민선 6기에 해당하는 2014-2018년 5년간 광주에서는 모두 126개 단지 5만3561세대의 아파트 사업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구 12개 단지 1만136세대, 서구 12개 단지 3851세대, 남구 16개 단지 8442세대, 북구 48개 단지 1만8136세대, 광산구 38개 단지 1만2996세대 등이다.

이는 민선 5기(2010-2013년) 2만9689세대에 비해 1.8배가 넘는 수치다. 광주시가 '계획'도 없이 추진하는 황룡강변 대규모 개발사업 이외에도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부지 역시 부지기수다. 전남·일일방직 부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등도 아파트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소유주가 이를 원하고 있다. 광주 근교항 이전사업비를 마련한다는 이유로도 아파트 4만1000세대, 민간공원특례 사업으로 1만6000세대 이상을 각각 공급한다. 이외에 예정돼 있는 도시 내 구도심 재개발·재

건축, 도심 자투리 부지 소규모 개발에 이르기까지 아파트는 계속해서 광주 곳곳에 들어설 전망이다. 대도시 광주가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모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의 황룡강변 개발은 2018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점과도 어긋난다.

시는 당시 영산강, 황룡강 등 수변지역에 대해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불허하겠다고 밝히고 그 시행을 2년 유예한 바 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주택종합계획, 경관계획 등 매년 수립역원을 들여 계획을 수립하지만, 광주시가 '계획'에도 없는 개발을 인허가해줄거나 직접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광주시가 적정규모의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규제하는 등 도시공간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아파트만 지어 이익을 보려는 건설업체에 의해 도시공간이 난도질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자 포장으로 집 ㎡ 7천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有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칸**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타브죽, 수리사용가 신아래 마을 뒷 야미산바리분 정남 매 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7004m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회춘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5만원

국민공인중개사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힐플러스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합병에 따른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호반프라퍼티 주식회사, 아브뉴프랑 주식회사는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에서 규정하는 합병절차에 따라 호반프라퍼티 주식회사가 아브뉴프랑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아브뉴프랑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호반프라퍼티 주식회사 및 아브뉴프랑 주식회사의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각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호반프라퍼티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87
대표이사 박찬미

합병에 따른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호반프라퍼티 주식회사, 아브뉴프랑 주식회사는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에서 규정하는 합병절차에 따라 호반프라퍼티 주식회사가 아브뉴프랑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아브뉴프랑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호반프라퍼티 주식회사 및 아브뉴프랑 주식회사의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각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아브뉴프랑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대표이사 강진주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법인은 2020년 11월 12일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2021년 01월 17일까지)에 그 채권액을 본 법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동합하우정 주식회사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102, 3층
(쌍촌동, 케이폴타워)
청산인 박민수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0년 11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1년 1월 18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1월 18일
주식회사 상상공작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248-13, 대영빌딩 4층(운남동)
청산인 서은선

산행안내

11월21일(토)
▲광주중앙산악회 11월21일(토) 거

연구과제 공모 공고

비엔이테크(주)에서는 회사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연구자의 연구력 향상을 위하여 "2021년 이후 중국의 환경 정책 방향" 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연구주제 : 2021년 이후 중국의 환경정책 방향 (중소기업 BM 접근 중심으로)

2. 신청자격
- 정규대학(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 (해당경력 5년 이상)

3. 신청서 접수
- 제출기간 : 2020.11.18. ~ 2020.11.25.(18:00)
- 제출서류 : 연구활동 및 실적서, 연구계획서, 이력서
- 열람방법 : 비엔이테크(주) 홈페이지(www.bnetech.co.kr) → 공지사항 확인
- 제출방법 : 인터넷 메일 접수(e-mail : bnetech9062@daum.net)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연구소 지원담당 이주현 과장 062-945-9062

비엔이테크(주) Bio & Environmental Technology
약취제거설비 & 탈취/탈황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0년 11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 감응한 주주전원의 동의로 자본의 총액 금420,000,000원을 금250,00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42,000주 중 17,000주를 유상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25,000주로 하여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임에 공고함.

2020년 11월 18일
이남건설 주식회사 (201311-0005258)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금천길 16-31, 나동 대표이사 차재욱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농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